

한반도 신경제지도 U자형 연결 시급

전남지사 당선인
이것부터 해결을

<7> 남해안 철도·흑산공항

전남지역 도로·철도·항공 등 SOC(사회간접자본)는 낙후됐다.

전남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하지만 지역 경계를 넘어 경남에 진입하면 넓고 쫓겨 있다. 철로도 경상구간은 복선 전철인데 반해 전라구간은 단선 일반철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문제가 SOC의 영호남 격차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도 동의할 정도다. 이들 두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남해안벨트 사업을 합의했다.

◇남해안철도 건설로 U자형 철도망 완결= 남해안벨트 사업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돼 있다. 한반도 신경제도는 전국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다.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은 이미 개통됐고, 남해안축만 남았다.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

보성~목포 구간 전철화 안돼
16년 지난 현재 공정률 38%

흑산공항 건설 철새에 발목
주민 응급구호·교통 해소 갈망
1년7개월째 지지부진

사·문화 자원을 갖췄으며, 조선해양·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집적지이기도 하다. 남해안권역을 시베리아·유럽까지 달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남해안철도다.

남해안철도는 목포(임성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연결하는 길이 336km 철도다. 부산-순천구간 208.5km는 이미 복선 전철화가 이뤄졌고, 진주-광양구간은 복선이지만 전철화는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설계 중이다. 하지만 보성-목포구간 82.5km는 일반철로 건설 중이며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다.

이 구간은 2002년 첫 삽을 떴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사 진행과 중단이 반복하다 16년이 지난 현재 겨우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표적 호남 차별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서면서 공사에 탄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이 구간의 공사가 이미 늦어진 만큼 일반철이 아닌 고속전철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목포-부산 간 철도 소요시간을 2시30분으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순천-목포 간 고속전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도 고속전철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전남을 오가는데 전남권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철도가 제약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남해안철도와 연결되는 경전선(광주순정-순천) 전철화 사업,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등 미래 신성장축 형성을 위한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

◇철새에 발목 잡힌 흑산공항= 흑산공항은 흑산도주민과 전남도민의 숙원 사업이다. 주민들은 응급구호와 교통불편 해소를 갈망하고, 전남도는 관광 활성화와 서남해 영토 수호 및 자원 관리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을 역설하고 있다.

흑산공항은 2021년 개항을 목표로, 신

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000㎡에 1.2km 활주로를 갖춰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소형 공항이다. 사업비는 1833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은 철새에 발목이 잡혀 1년7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국립공원에 제출했지만 심의에서 ‘철새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국립공원은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라’며 재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번째 변경안을 제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돼 섬 주민과 관광객 통행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김 당선인은 “전남 서남권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 있는 문제인 만큼 계획기간인 2021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에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끝>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혁신위, 위원회 설립 계획 남발 군공항 이전·어등산 등 해법은 없어

5개 분과서 7개 설치 내비쳐
현재 市 산하 162개 위원회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7기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위원회와 기관 설립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민선 7기의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혁신위원회가 세부적인 계획 마련보다는 위원회, 기관 설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당선인은 26일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경찰청, 소방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민불편해소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시민주권분과위원회가 직원 인사 및 고충 등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시장 핫라인’을 개설하고,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와 혁신과제로 내놓았다. 또 광주 시민권리장전 제정·선포하고 ‘광주시 민정책임기반’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4일에는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이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위원회 산하에 ‘광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26일까지 광주혁신위원회 7개 분과 중 5개 분과에서 7개의 위원회와 핫라인을 설치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난 22일에는 도시재생분과위원회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또,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지난 25일 아무런 개선책 없이 “무산된 1차 공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2차 공모를 준비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26일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노인건강타운 및 장애인회관 추가 건립, ‘성평등활동센터’ 설치 등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운영 방안, 최대 600억원이 넘는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 당선인과 광주혁신위는 지난 21일부터 7개 분과위원회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현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알맹이는 빠진 채 이를 추진할 위원회 설립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혁신위 활동이 이 당선인의 공약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위원회나 기관들만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 산하 위원회는 모두 162개이며, 이들 위원회에는 297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26일 ‘광주행복 1번가’ 민원을 낸 시민과 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열린 ‘민선7기 공약추진방안 보고회’에서 김영록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행복 1번가’ 시민불편 1183건 접수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26일 광주혁신위원회 사무실에서 온라인 민원접수 플랫폼인 ‘광주행복 1번가’에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1183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첫 번째 제안자인 김안나 씨와 마지막 제안자 40대 김경일 씨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접수된 분야별 민원은 복지환경이 29%로 가장 많았고, 교통문제 25%, 도시개발 18%, 행정개선 16%, 관광문화 12%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25%, 30대 16%, 20대·40대 각 14%, 10대 1% 등이다.

이 당선인은 접수한 민원을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취임 후 100일안에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광주혁신위원회도 운영 기간(6월 14~29일)에 온라인 플랫폼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 (<http://bit.ly/ideaawangju>)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접수된 내용은 7개 분과위원회 중 도시·교통·안전 분과가 265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경제분과 65건(14%), 문화관광체육분과 48건(10%), 복지여성분과 39건(8%), 시민주권분과 19건(4%), 도시재생분과 17건(4%), 민주인권평화분과 4건(1%) 등으로 집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기획단

민선 7기 전남도가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결합한 ‘(가칭)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조성된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 에너지산업융합단지 등을 묶어 ‘에너지사이언스파크’를 만든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취임준비기획단 이견철 단장은 26일 기획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 본사와 에너지 기업이 입주한 에너지밸리에 더해 한전공대를 유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묶으면 전남이 에너지산업의 알파오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의 ‘에너지사이언스파크’ 규모라면 지형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포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너지융복합산업 성과를 공유한다면 한전공대 부지 문제는 크게 밀고 당기지 않아도 된다”는 김 당선인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공대가 에너지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하면 광주·전남이라는 지역적 의미는 가치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 단장은 “당선인은 ‘도민 제일·지상주의’ 행정을 가장 분명히 약속했고, 그다음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기업을 포함해 10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국제 IoT·가전·로봇 박람회 다음달 5일 열려

김대중컨벤션센터서 3일간
20개국 150개 기업 참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소개하고 로봇·스마트 가전을 시연하는 광주 국제 IoT·가전·로봇 박람회가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에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공통)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20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해 300개 부스를 운영한다.

또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와 광주전남공통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매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인공지능, 의료로봇, 3D프린팅 등 미래사회 핵심기술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유럽국가 투자청이 주관하는 시장동향 파악 및 진출전략 세미나, 로봇·드론 인재를 육성하는 빛고를 로봇·드론 페스티벌도 마련한다.

문의 062-611-2118.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